

텐구다키 폭포

텐구다키 폭포는 높이 8 미터로서 기쿠치 계곡에서 큰 낙차와 가장 큰 낙수 소리를 자랑하는 폭포 중의 하나다. 현재는 류가부치 용소에 놓인 다리 위에서 볼 수 있지만, 일찍이 이 계단 모양의 폭포는 울창한 잡목림에 가려져 텐구에게 이상적인 환경이었다고 생각되고 있다. 텐구란 슈겐도와 관계가 있는, 크가 긴 요괴 같은 전설상의 생물이다. 수백 년 전 이 폭포는 정신 수양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대자연 속에서 나오지 않는, 일본 고유의 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슈겐도의 신봉자들이 수행하던 장소의 일부였다고 생각되고 있다. 가까운 산에서 수행하던 신자는 때때로 텐구다키 폭포에 들러 차가운 물로 몸을 정결히 했다고 한다.